

오순절 후 열일곱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7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9월 2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41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9 번 (시편 95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데살로니가후서(2Thessalonians)3:1-6	임소영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놀라운 은혜”	찬양대
설 교 Sermon	“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For Not Everyone Has Faith)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믿음이 없이는”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374 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통일 423)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보다는, 죄악된 세상의 길을 계속해서 걸논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주저했던 우리의 불신앙과,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을 좇았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하오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0:27, 엠 4:23-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끝으로 형제들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개역개정 **살후3:1-2**)

“Finally, brothers, pray for us that the message of the Lord may spread rapidly and be honored, just as it was with you. And pray that we may be delivered from wicked and evil men, for not everyone has faith.” (NIV 2 **Thessalonians 3:1-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24 (주일)	9/25 (월)	9/26 (화)	9/27 (수)	9/28 (목)	9/29 (금)	9/30 (토)
본문	삼하20 고후13 겔27	삼하21 갈1 겔28	삼하22 갈2 겔29	삼하23 갈3 겔30	삼하24 갈4 겔31	왕상1 갈5 겔32	왕상2 갈6 겔33
	시75,76	시77	시78:1-37	시78:38-72	시79	시80	시81,82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9/27수 오후7:30)	“영성의 갈”(6)-“거룩한 전투의 영성” (엠6:12)
토요 새벽기도회 (9/30토 오전6:30)	“주의 말씀의 맛” (시119:97-104)

지난 주일(9/17) 말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 4:4-7)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1)기쁨과 2)관용과 3)기도라는 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첫째,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빌 4:4)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조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는 우리의 감정에 따른 기쁨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참된 기쁨(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둘째,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빌 4:5) 하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대하며, 또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3)셋째, 우리가 직면한 여러 염려와 걱정들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ichard Rainy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로 바꾸며, 또한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아뢰는 청원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네” (빌 4:7)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며, 또한 염려 대신에 매순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